

NHK “아베 담화에 ‘침략’ ‘사죄’ 포함”

반성·사죄 차원 아닌 비판 무마용 언급 그칠 가능성

무라야마 전 총리 “잘못된 일을 사죄하는 것은 당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에 ‘침략’ ‘사죄’라는 표현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 침략임을 국가 지도자로서 인정하고 반성·사죄하는 차원이 아닌 비판 무마용·일반론적인 언급에 그칠 가능성이 여보인다.

NHK는 아베 총리가 이달 14일 각의 결정을 거쳐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의 원안에 ‘침략’ ‘사죄’ ‘통절한 반성’ ‘식민지 지배’라는 단어가 모두 명기됐다고 정치권 관계자를 인용해 10일 보도했다.

NHK는 다만 과거 역사나 역대 정권의 대응을 거론하는 대목 등에 이들 표현이 모두 반영됐다고 전했다. 일본의 침략 전쟁을 사죄한다는 구체적 내용이 있는지는 보도하지 않았다. 이 같은 보도는 “아베

담화 초안에 ‘사죄’ 문구는 물론 그와 유사한 문구도 없다”고 전한 9일 아사히신문의 보도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아사히는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을 포함했으나 일본이 전쟁 당시에 행한 행위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었다는 점을 담화가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산케이(産経)신문도 이날 아베 총리가 ‘사죄’를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일본의 전쟁만을 지목해 침략이라고 하기보다는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침략’을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베 총리는 자문기구인 ‘21세기 구상 간담회’가 최근 제출한 보고서에 “일본의 행위만 ‘침략’으로 단정하는 것에 저항이 있다”는 의견이 담긴 것을 고려해 이같이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4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반동회의) 6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했던 자신의 연설을 참고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당시 아베 총리는 “침략 또는 침략의 위협, 무력행사에 의해 타국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제분쟁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한다”는 1955년 반동회의 원칙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침략을 언급했다.

지금까지 나온 일본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NHK가 ‘침략’ ‘사죄’를 언급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를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사죄하는 맥락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 아베 총리가 앞서 ‘침략’의 정의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한 것이나 반동에서의 연설 내용, 산케이신문의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전후 70년 담화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이 ‘침략’이라고 규정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국주의 시대에 세계 각지에서 침략이 있었고 이제 이런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는 일반론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전후 70년 담화에 사죄의 표현이 없으면 “이웃국가들 사이에 다시 의심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9일 보도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침략은 역사적 사실로, 잘못된 일을 사죄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라야마는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명기한 자신의 전후 50년 담화(무라야마 담화) 발표 배경에 언급, “중국, 한국, 동남아 국가들은 일본이 전쟁 뒤 처리를 하지 않은 채 경제 발전을 이룬 것으로 보고 있고,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거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과거를 청산하고 아시아 국가로부터 신뢰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미 공화당 대선후보 첫 TV 토론회

트럼프 지지율 확고한 1위

지난 6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첫 TV 토론회가 공화당 경선 구도를 뒤흔들고 있다.

각종 막말에다가 노골적인 여성 비하 논란에까지 휩싸였는데도 도널드 트럼프는 확고한 1위 자리를 지켰다. 나머지 후보들의 순위는 토론 이후 크게 뒤 바뀌었다.

NBC 뉴스와 서베이몽키닷컴이 토론 직후인 7~8일 실시해 9일 공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는 23%의 지지율로 1위를 고수했다. 그 다음으로는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13%, 신경외과 의사 출신 벤 카슨 11%,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패커드(HP) 최고경영자와 마크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각 8%, 켈리 안드레아스 전 플로리다 주지사와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

사 각 7% 등이었다.

이번 온라인 조사만 놓고 보면 TV 토론 직전까지 트럼프와 함께 선두그룹을 형성했던 부시 전 주지사와 위거 주지사의 지지율은 크게 떨어지면서 뒤로 밀리고, 반대로 그동안 하위권에 머물렀던 크루즈, 카슨, 피오리나 전 최고경영자의 지지율은 대폭 오를 것이다.

특히 기존 여론조사 상위 10위에 들지 못해 ‘2부 리그’ TV 토론에 참여했던 피오리나 전 최고경영자의 부상이 눈에 띈다. 미 주요 언론은 앞서 TV 토론 직후 일제히 2부 리그의 승자는 피오리나 전 최고경영자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첫 TV 토론의 승자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22%가 피오리나 전 최고경영자를 꼽았다. 트럼프는 18%를 받아 2위에 랭크됐다. /연합뉴스

“日정부, 항복선언 닷새전 8월 10일

전범문제 피하려 공문서 소각 결정”

을 102세 오후노 전 법무장 회고

일본이 1945년 패전 선언 닷새 전 전쟁 책임 추궁을 피하려고 정부 차원에서 공문서 소각 결정을 내렸다는 전직 관료의 증언이 나왔다.

올해 102세인 오후노 세이스케(奥野誠亮) 전 법무상은 10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실린 회고담에서 일본 정부가 항복 이후의 상황에 대비해 황급히 취한 조치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패전 당시 내무성 지방국 전사업무과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오후노 전 법무상은 1945년 8월 10일 사코미즈 히사쓰네(迫水久常, 1977년 사망) 당시 내각서기관으로부터 전쟁종결처리 방침을 정리해 달라는 크비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가 끝나고 나서 공문서 소각 지령서가 작성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따라 각 성(省) 관방장을 내무성에 모아 회의를 열었으며, 당시 회의에서 공문서 소각이 결정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미국, 영국, 중국 등이 일본에 항복을 권고한 포츠담 선언에 전쟁범죄자를 처벌한다는 방침이 기재돼 있었고, 이 때문에 종전 후 전범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고자 관련 문서를 전부 태우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오후노 전 법무상은 “회의에서는 내가 ‘중거가 될 수 있는 공문서는 전부 태우게 하자’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오후노 전 법무상은 당시 회의에서 군물자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중요한 의제가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 항일부대 활약상 담은 옛 기록문서 공개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9월3일)을 앞둔 중국이 이번에는 항일부대들의 활약상을 담은 옛 기록문서들을 공개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제2역사당안관(기록물보관소)이 최근 중일전쟁 시기 항일전선의 최전선을 담당했던 팔로군, 신사군 관련 자료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10일 보도했다.

1937년 제2차 국공합작을 계기로 편성된 팔로군, 신사군은 실질적으로는 공산당 산하 부대면서 형식적으로는 국민당 지휘를 받았다.

공개된 자료 중에는 중국이 항전 기간에 처음으로 승리를 거둔 ‘핑샹관(平型關) 대첩’, 신사군이 장쑤(江蘇)성 남부 지역에서 거둔 승전인 ‘웨이강(韋崗) 전투’에 관한 전황보고서, 기록사진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퍼거슨 사태’ 1주년 주민 거리행진 ‘퍼거슨 사태’ 1주년인 9일(현지시간) 미국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주민들이 비를 맞으며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1년 전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찰관 대런 윌슨의 총에 맞아 숨졌다. /연합뉴스

미 텍사스 가정집서 일가족 8명 숨진채 발견...살인 용의자 체포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 시 인근의 한 가정에서 어린이 6명과 어른 2명이 수갑이 채워진채 머리에 총을 맞고 잔인하게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흑인 남성 용의자 데이비드 컨리(49)에게 투항토록 설득한 뒤 3건의 살인 혐의를 적용

해 긴급 체포했다. 9일(현지시간) 지역 방송인 KHOU 방송과 NBC 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해리스 카운티 경찰은 전날 오후 9시께 휴스턴 인근의 한 가정에서 일상적인 가택 순찰을 하던 중 집에서 응답이 없자 이를

수상하게 여겼다. 자체 정보를 통해 앞서 이 집에 사는 가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컨리가 현재 집에 있다는 내용을 입수한 경찰은 집 주변을 통제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던 중 열린 창문을 통해 어린이의 시신을 발견했다. 해리스 카운티 경찰국의 토머스 길리랜드 대변인은 “이를 본 경사 1명과 경관 3명 등 4명의 경찰이 ‘고위험작전 전담반’ 출동 전 곧바로 집에 침투해 총을 발포한 용의자와 총격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문 협상가를 동원해 용의자를 설득했고, 약 1시간 후 항복한 용의자를 큰 저항 없이 검거했다. /연합뉴스

펜션·찻집·식당

전원주택지, 요양(병)원·연수원 적합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 산 2-5번지
- 대 2441평, 건 882평, 임 6726평, 계획관리지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귀농/귀촌 전남지역 제1순위 주위, 전원주택 단지등 개발중!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 정도 상승 가능
- 관광특구로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시세/감평가 - 30억원
- 매매 - 22억원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현, 12억 5천만원 대출 있음(연 2.1%)

18개월후 20억까지 대출 가능

공동중개 환영 H.010-3605-5000

■ 19평 - 2013년 신축
5층 중 5층, 전망좋은, 베란다
신우APT 105동 옆, 엘리베이터
매매 - 1억 500만원
(시세/분양가 - 1억 3000만원 정도)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광전파크 빌라

■ 34평 - 2013년 신축
5층 중 2층, 첫 입주, 정남향
신우APT 105동 옆, 엘리베이터
대출 1억 1천만원 안고
매매 - 1억 6500만원
(시세/분양가 - 1억 9천만원 정도)

주인직매 H.010-3605-5000

최고위치·근린상가

현재, 빅스 Bar 운영으로 최고 수익!

- 금호동 서광병원 맞은편, 7층중 7층 120평
- 레스토랑/레스토랑/커피/커피전문점/호프/PC방/헬스장
재즈바/노래홀/룸수주방/단란주점/7080/당구장 등 최적
- 매매-6억 3천만원(대출 3억 6천만원 포함)
60평 분할 매매-3억원
- 임대-보 1억에 월 300만원
60평 분할 임대-보 5천에 월 170만원

공동중개 환영 H.010-3605-5000